

# 신선하고 푸짐한 '황금백반' ...해산물 요리도 인기



## 황금밥상

가족과 함께 살아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 편의점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단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한파에 쫓겨 얼어버린 몸을 녹이며 집에서 갖기 힘든 따뜻한 한끼를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최근 광주 북구 신용동 '황금밥상'에도 제대로된 집밥을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황금밥상'은 빌라촌 안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부담되지 않는 가격과 깔끔하고 푸짐한 음식들로 인근 직장



황금밥상의 주메뉴인 7,000원 백반과 추가 주문한 간장게장 한상차림.

저렴한 가격에 매일 바뀌는 10가지 밑반찬

제철 나물은 기본...생 우럭탕에 소주 환상

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성비 좋 은 맛집으로 통하고 있다.

특히 매일 직접 만드는 10가지 반찬 은 매일 이곳을 찾게하는 황금밥상의



애주가를 위한 칼칼한 맛이 일품인 '생우럭탕'.

자랑거리다.

백반의 반찬은 메인반찬 외 기본 10가지를 유지하고 있다. 김명자 사장(61)은 매일 직접 장을 보며 제철 나물과 해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손님상에 내고 있다.

이렇게 푸짐한 밥상의 가격은 최저 임금 인상과 경기불황에도 1년째 7,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백반과 함께 즐길수 있는 '둘계장'은 김 사장이 가장 자신있게 내놓는 메뉴다. 간장게장의 비린맛을 잡기 위해 연구 끝에 완성한 '둘계장'은 동충하초

를 넣어 게 특유의 비린맛을 꼭 잡았다.

최근 후술한잔을 기울일수 있는 메뉴들도 알차게 준비돼 있다.

주요 메뉴로는 ▲생우럭탕 ▲갈치조림 ▲명게해초비빔밥 ▲굴찜 등 해산물 요리들이 있다.

이 중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칼칼한 맛이 일품인 생우럭탕이다. 쉽게 먹을 수 있는 매운탕 대신 칼칼하고 담백한 생우럭탕은 한끼 식사 는 물론 술안주로도 손색없다.

해산물은 모두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구매해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신선하고 푸짐한 '황금밥상'의 음식들은 7,000원에서 5만원선 까지 다양한 가격대에서 즐길수있다.

김사장은 "최근 점심시간은 물론 저녁시간까지 손님들이 많아져 기쁘다"며 "황금밥상을 찾는 손님들 기억에 오래 남을수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 눈에 쪽 경제지표



## 국고채 3년물 연 1.792%로 연저점

국고채 금리가 11일 단기물은 하락(채권값 상승)하고 장기물은 대체로 상승(채권값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1bp(1bp=0.01%p) 내린 연 1.792%로 장을 마쳐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1년물도 연 1.790%로 0.4bp 내렸다. 이에 비해 10년물은 0.2bp 오른 연 1.980%로 마감했고 5년물도 0.4bp 올랐다. 또 20년물과 30년물도 각각 0.3bp, 0.1bp 상승했다. 다만 50년물은 0.5bp 하락했다. /연협뉴스

## "건설현장 주 52시간 시행 부담"

건설산업연, 109개 현장 조사

주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 대형 건설현장의 44%가 계약된 공사 기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개 대형 건설사가 보유한 109개 건설사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48개 사업장(44%)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계약된 공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협뉴스

##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 만들 터"

### 김명자 사장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해 김명자 사장(61)은 제대로 된 집밥을 만들고 싶다는 신념 하나로 백반집을 열었다.

김 사장은 "저를 포함한 4남매가 전라북도에서 10년동안 음식점을 운영

했었다"며 "힘이 들어 음식점을 접고 광주로 내려왔지만 제대로된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가게를 열게됐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문을 연지 1년만에 단골손님과 인근 직장인들에게 맛집으로 소문났다. 점심 시간에는 대기 줄이 설때도 꽤 있다.

매일 10가지의 다른 반찬을 만들기 위해 김사장은 1년째 새벽부터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는 "매일 구매한 재료들로 반찬을 만들어 단골손님들도 질려하지 않는다"며 "나와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조미료를 최대한 배 배백한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백반과 함께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둘계장'은 김사장이 가장 자신있게 하는 메뉴다. 김사장은 비린맛을 잡기 위해 연구 끝에 동충하초를 넣은

간장을 개발했다. 주재료인 게 또한 제철인 3월과 4월에 잡아 급냉한 게를 사용하고 있다.

음식 맛 외 김사장이 가장 신경쓰는 것은 청결이다. 매일같이 식기류를 삶고 주방기구를 청소하며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맛있는 한끼를 제공하고 싶다는 김사장은 "힘이 닿는 데까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손님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가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수영 기자



## 금감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감리 착수

분식회계 의혹...판매권 되팔아 218억 매출 처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또 다시 대형 바이오기업 감리를 착수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지 조사하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개발을 맡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판매를 전담하는 계열사다.

셀트리온은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독점적 제품 판매권을 넘겼는데 셀트리온이 올해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이며 218억원을 지급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금액을 매출로 잡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6.5% 줄었는데, 셀트리온이 지급한 금액 때문에 영업이익자를 겨우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영민 기자



겨울철 삼성 세탁건조기 '인기' 삼성전자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가 겨울맞이 인기를 끌고있다. /삼성전자 제공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 전략 워크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12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대한 표준화 전략 마련을 위해 '2018년 ISO/IEC JTC 1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분야인 인공지능, IoT,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국제 국가표준화 현황 및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함께 ICT와 농업기술의 융합에 따른 ICT 기반한 농업기술 강화를 위해 국립전파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식도 열린다.

양 기관은 ▲전자파 및 통신기술을 이용한 미래농업기술개발 상호 협력 ▲ICT와 농업기술 융합·확산을 위한 국내 및 국제 표준화 협력 ▲농업분야 ICT 기기 전자인증에 관한 기술·제도 상호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김용현 기자

이웃의 작은 바늘 따뜻한 행동하

찾아가는 창업·경영 서비스

# 도구가 이 일 자리를 찾아드립니다

OK! Call-me~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창업지원센터  
Tel. 062-608-3990-1 Fax. 062-608-2719

상담전화 : 062-608-3992  
찾아오시는 곳 : 동구청 앞 서남동주민센터 2F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기간 2018 1월 ~ 12월

지원대상	지원내용
-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중 청년 신규 고용기업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12개사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신청 기업	- 중소기업 특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사물레이션 지원 : 10개사

문의 광산구 사회경제과 062-960-8426

광산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광양시가 함께 합니다.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 061-797-3352